

“즐길거리 넘치는 춘향제 오세요”

남원시, 오늘부터 16일까지
광한루원·요천둔치 등 일원
교통·숙박·음식·체험 종합 점검



최경식(왼쪽 세번째) 남원시장과 시 관계자, 춘향제준비위원들이 춘향제 축제 현장을 찾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최종점검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제94회 춘향제' (10일~16일 광한루원과 예촌, 요천둔치 및 사람의 광장 일원) 개최를 앞두고 춘향제준비위원회와 함께 행사의 성공개최를 위한 최종점검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점검은 축제의 안전 관리, 먹거리의 품질 및 위생, 다양한 체험 활동의 준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진행됐다.

함께했던 최경식 시장과 준비위원들은 축제장 전역에서 교통, 화재 예방, 비상대응 준비 상태를 자세히 살폈다.

특히 축제 기간 방문객들의 식품 안전과 위생을 확보하기 위해 먹거리 부스를 대상으로 한 비밀 점검관 운영과 현장 신고 시스템의 운영을 재확인했다.

시는 춘향제를 찾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임시 '차박'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위치와 수용 대수, 실시간 주차 현황을 시내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 및 모바일 앱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또 사람이 붐비는 휴일 3일(11~12일, 15일)간 20분 간격으로 촘촘하게 셔틀버스 운영을 준비해 손님맞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일부 숙박업소가 축제 특수를 누리고자 숙박요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부적정 행위를 포착함에 따라 '숙박 바가지'에 대응하는 임시 '차박' 공간을 운영한다.

차박 공간은 모두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곳으로 마련됐다. 교동산 국민 관광지, 종합스포츠타운, 합파우 소리체험관, 요천생태공원 등 총 4곳이다. 일반 승용 차량과 카라반, 캠핑카를 포함해 모두 300대를 수용할 수 있다.

임시 차박 공간은 정식 취사 및 샤워 시설을 갖

추지 못해 일부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화장실 개방과 필요하면 임시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차박 공간 위치와 신청 방법 등은 춘향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우리는 축제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다양한 문화 체험과 우수한 먹거리 그리고 안전한 축제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구직 여성-멘토 매칭' 취업 돕는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멘토지원단 발대...사회복지 등 3개 직종

정읍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 주관 '사후관리사업'의 하나로 '여성 취업 성공 멘토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현장 멘토&성장 멘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자(멘토)와 구직여성(멘티) 상호 간 직업정보와 직장 적응 기법 등을 공유함으로써 여성의 취업과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멘토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위촉장을 전달받고 직장 적응 기법을 공유했다.

정읍새일센터는 구인 수요가 높은 여성 취업 희망직종으로 3개 직종을 선정하고 이 분야에서 활동 중인 멘토와 멘티 1~2명을 연계해 취업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안정적인 취업까지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멘토링 3개 직종은 사회복지, 사무경리, 조리 분야로 분야별 멘토는 취업에 성공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준비 방법부터 관련 교육 정보, 업무 분야 기법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훌륭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가 소그룹을 이뤄 월 1회 이상 정기모임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을 만나며 가르침으로써 자생적으로 취업역량을 키워나가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11월까지 진행되며 11월에는 멘티의 취업 성공사례를 나누는 토크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지자체 합동평가 7년 연속 최우수

국정지표 58개 중 56개 달성...전북 최고 수준 행정 역량 인정

남원시가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2023년 실적)'에서 전북도 내 14개 시·군 중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남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둬 행정 역량이 도내 최고 수준임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행안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 평가다.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행안부는 17개 광역시·도를, 전북자치도는 14개 시·군을 평가한다. 목표 달성 여부를 나타내는 정량평가 항목에서 남원시는 58개 중 56개 지표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 과제 추진 전반에 걸쳐 고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원시는 이번 평가를 위해 주기적 실적 관리와 전문가 일대일 상담, 보고회 개최 등으로 실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남원시는 재정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정읍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의견 수렴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개최
바이오규제혁신센터 현황 등 논의



정읍시는 지난 8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제1차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시장)는 정읍의 과학기술진흥 시책 등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다.

지역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장, 시의회 의원, 과학기술 관련 교수, 과학기술 선도 기업 대표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첨단과학관'의 기능중복 해소 및 공유재산 활용을 위한 운영(폐관) 방안에 대한 심의와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지원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규제혁신센터의 진행 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첨단과학관의 폐관과 지역 내 타 과학관과의 관계 설정에 동의하고, 폐관 이후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에 우선으로 행정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지원을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의 협업으로 정읍에 설치하는 '바이오 규제혁신센터'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행정재산의 합리적인 활용으로 정읍의 과학기술 진흥에 힘을 보태겠다”며 “바이오규제혁신센터 설치로 과학기술진흥과 기업지원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치매어르신 맞춤형 보호 서비스

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 개소...재활치료·체력 증진 등

고창군이 사회복지시설지구 내 고창군노인요양원 치매전담실을 마련하고 치매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보호서비스에 나섰다.

지난 8일 개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임정호 고창군의회 군의장, 정중만 장애인복지관장 등이 참석해 축사, 현판제막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치매전담실은 고창군 사회복지시설지구 안에 16억원을 투입해 지상 1층(393㎡)에 정원 16인

(3인실 4개, 2인실 2개) 규모로 건립됐다. 공동거실(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등)과 욕과공간에서 치매어르신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시설 운영을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 김정호)과 2028년까지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종사자들이 치매어르신들의 재활치료, 인지능력 개선, 체력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전봉준동상소공원' 분수 9월까지 운영

고창군 중심에 우뚝 선 '전봉준장군동상'이 분수와 함께 화려하고 시원한 여름을 맞는다.

군청 앞 회전교차로 인근 전봉준장군동상 소공원 내 분수가 이번 주부터 9월까지 운영된다.

분수는 무더운 여름 전봉준장군 동상을 찾는 방문객과 이곳을 오가는 군민 모두에게 시원함을 더해줄 예정이다. 특히 야간에는 특수 조명에 분수와 동상

을 비추면서 도시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줄 예정으로 분수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가동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더위에 지친 군민들이 이곳을 지나는 동안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며 “여름 저녁 이 분수공원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소소한 공연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